

자력갱생을 번영의 보검으로 들머지고

새형의 무궤도전차설계를 완성하던 나날에

지금 룽우거진 평양의 거리로는 새형의 무궤도전차가 인민의 웃음신고 썩쟁달리고있다. 불수록 멋있고 삶의 량만과 긍지를 북돋아주는 이 무궤도전차도 공화국의 인민들이 자력갱생의 정신으로 만들어낸것이다. 2018년 3월 수도려객운수국 운수설계연구소 일군의 방에 서는 열기된 토론이 벌어지고있었다. 회의에 참가한 일군들과 설계원모두가 커다란 흥분에 휩싸여있었다. 얼마전 새형의 무궤도전차를 타보신 경에 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 무궤도전차를 타보니 편안하고 믿음이 간다고, 완충장치도 좋고 진동과 소음도 없으며 속도도 괜찮다고, 전차의 기술상태가 좋다고 하시면서 무궤도전차의 기술적특성을 보다 갇신할때 대한 영예로운 과업을 또다시 맡겨주시었던것이다. 누구나 형성안에 있는 그대로 설계를 해야 한다는 립장은 명백하였지만 실지 어떻게 만들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대책안은 내놓지 못하고있었다. 그도 그렇것이 하나하나가

어려운 기술적난점을 안고있고 또 설계는 한다고 해도 제작을 실현할수 있겠는가 하는 위구심으로 하여 쉽게 결심할수 없기때문이었다. 이때 수도려객운수국의 일군은 어떻게 하나 자체의 힘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달라붙은 방도는 얼마든지 생긴다. 모든것이 설계의 질적수준에 달려있으니 설계원들에게 있어서 설계원들을 불러일으켰다. 무궤도전차의 기술적특성을 개선하기 위한 설계전투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처음 이들에게 나신 과제는 앞면유리부분에 대한 설계였다. 형성안대로 하자면 앞면 유리설계의 3차원화를 실현해야 하였다. 종전의 유리설계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있던 설계원들에게 있어서 어려운 과제가 아닐수 없었다. 무궤도전차의 미학적요구를 실현하느냐 마느냐가 앞면 유리설계에 달려있었다. 두번째로 열린 방안의도 아무런 소득이 없어 모두가 락심해있을 때 한 설계원이 자기 한번 해보겠다고 하면서 설명을 해나갔다. 그 방안이 얼마나 기발하고 독특하였던지 그의 설명이 끝나기도 전에 저

마다 찬물을 표시하였다. 이렇게 되어 형성안에 맞으면서 제작에도 편리한 새로운 방법에 의한 앞면유리설계가 진행되었다. 이런 헌신적인 노력속에 이들은 마침내 자체의 로력과 힘을 매마라 설계원들은 더욱 분발하여 전투를 벌려나갔다. 완강한 돌격전을 벌려 이들은 짧은 기간에 제작하기 편리하면서도 미학적요구를 충분히 반영한 3차원유리설계를 훌륭히 완성하게 되었다. 미다익이동창이 달린 옆면 유리부분에 대한 설계를 진행할 때에는 이런 일도 있었다. 설계원들은 설계에 선진기술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면서도 옆면유리설계에서는 종전의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다. 이러한 실례를 룽해한 수도려객운수국의 한 일군은 설계원들에게 물론 형성안에 있는 그대로 설계를 할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된다. 세계적인 선진기술을 받아들여 설계를 훌륭히 완성해야 한다고 절절하게 말하였다. 그러면서 현대적미감에 맞는 새로운 유리설치방법을 확립할것을 제기하였다.

이때부터 설계원모두가 새로운 유리설치방법을 내놓기 위한 연구사업에 떨쳐나섰다. 연구소안에서도 밖에서도 모두의 지향은 하나로 합쳐졌다. 이런 헌신적인 노력속에 이들은 마침내 자체의 로력과 힘을 매마라 설계원들은 더욱 분발하여 전투를 벌려나갔다. 완강한 돌격전을 벌려 이들은 짧은 기간에 제작하기 편리하면서도 미학적요구를 충분히 반영한 3차원유리설계를 훌륭히 완성하게 되었다. 미다익이동창이 달린 옆면 유리부분에 대한 설계를 진행할 때에는 이런 일도 있었다. 설계원들은 설계에 선진기술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면서도 옆면유리설계에서는 종전의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다. 이러한 실례를 룽해한 수도려객운수국의 한 일군은 설계원들에게 물론 형성안에 있는 그대로 설계를 할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된다. 세계적인 선진기술을 받아들여 설계를 훌륭히 완성해야 한다고 절절하게 말하였다. 그러면서 현대적미감에 맞는 새로운 유리설치방법을 확립할것을 제기하였다.

이때부터 설계원모두가 새로운 유리설치방법을 내놓기 위한 연구사업에 떨쳐나섰다. 연구소안에서도 밖에서도 모두의 지향은 하나로 합쳐졌다. 이런 헌신적인 노력속에 이들은 마침내 자체의 로력과 힘을 매마라 설계원들은 더욱 분발하여 전투를 벌려나갔다. 완강한 돌격전을 벌려 이들은 짧은 기간에 제작하기 편리하면서도 미학적요구를 충분히 반영한 3차원유리설계를 훌륭히 완성하게 되었다. 미다익이동창이 달린 옆면 유리부분에 대한 설계를 진행할 때에는 이런 일도 있었다. 설계원들은 설계에 선진기술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면서도 옆면유리설계에서는 종전의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다. 이러한 실례를 룽해한 수도려객운수국의 한 일군은 설계원들에게 물론 형성안에 있는 그대로 설계를 할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된다. 세계적인 선진기술을 받아들여 설계를 훌륭히 완성해야 한다고 절절하게 말하였다. 그러면서 현대적미감에 맞는 새로운 유리설치방법을 확립할것을 제기하였다.

인민사수전, 인민복무전

공화국에서 벌어지는 정면돌격전은 인민의 존엄은 삶과 행복을 지키고 꿈과 리상을 실현하기 위한 인민사수전, 인민복무전이다. 공화국은 인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중대한 결단도 서슴없이 내리고 인민의 불행을 가져오는 일이 라면 나라의 재부를 아낌없이 통채로 기울여왔다. 모든것이 어려운 속에서도 인민적사익이 변함없이 실시되고 국가의 모든 사업이 인민사수, 인민복무로 지향되고있는것은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가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다. 공화국은 순간의 주저나 동요도 없이 주동적인 공격, 적극적인 공세로 올해의 정면돌격전에서 인민을 위한 거창한 작전을 련이 펼쳐지고있다. 평양의 명당자리에 하루가 다투어 일떠서는 평양종합병원건설을 놓고 보아도 잘 알수 있다. 공화국은 평양종합병원 건설을 조건과 환경이 어떠하든 국가적으로 최우선적인 힘을 넣어야 할

중대사로 내세우고 힘있게 추진하고있다. 지금 병원건설에 동원된 건설자들은 인민에 대한 열사복무의 새 경풍을 수놓아가는 개척자, 선구자라는 영예와 긍지를 가슴에 안고 총성의 돌격전, 치열한 철야전, 과감한 전격전을 벌려나가고있다. 공화국은 고도의 정면돌격전에서 자력부강, 자력번영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들었다. 그것은 자력갱생이 공화국의 영원한 진로이고 자력, 자강의 위엄만이 나라와 인민의 천만년미래를 굳건히 담보해주기 때문이다. 당창건 75돐을 승리의 대축전으로 빛내기 위한 전당적, 전국적, 전인민적총진군의 불길인 새차례 라면지고있는 시기에 소집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14차 정칙회 확대회의에서는 악성전염병을 막기 위한 6개월간의 사업정형총화 와 국가의 불바람을 거둬들이기 위한 방역형세를 더욱 공고화하기 위

한 문제, 평양종합병원건설을 다그치고 의료봉사를 위한 인적 및 물질적 술적대장대책을 강구할데 대한 문제 등이 토의되고 해당한 결정서가 채택되었다. 지난 5월의 하늘가에 정면돌격전의 첫 승전포성을 장쾌하게 울린 순천 립비료공장의 준공은 자력갱생의 위력을 총폭발시켜나갈 때 인민의 아름다운 꿈과 리상을 전면적으로 실현해나갈수 있다는 승리의 신심을 백배해주고있다. 인민경제 그 어느 부문에서나 올해의 정면돌격전에서 자력갱생의 정신과 과학기술의 기치를 높이 들고 기어올라 승리를 안아올 인민들의 드높은 투쟁열기를 느낄수 있다. 강력한 자기의 힘을 키워 인민의 삶의 보검자리를 지키고 자자손손 부락할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기 위한 공화국의 정면돌격전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거세어지고있다. 본사기자 김철

관상적가치가 큰 말린소나무제품들

중양식물원에서

우리 민족의 역센 기상, 넓고 의지, 숨결은 소나무의 생물학적특성에 그대로 비껴있다. 공화국의 중앙식물원에서 조선의 국수인 소나무로 관상적가치가 큰 말린소나무제품들을 만들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고있다. 일반적으로 말린식물제품은 락수, 시약에 의한 색깔 보존과 형태처리를 한것으로서 실내장식용으로 그 가치가 크다. 지난 시기 대체로 식물표본형태로 리용되던 말린식물제품들은 오늘날 시대가 발전하고 사람들의 문화생활이 다양해짐에 따라 장식품으로 그 인기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그에 맞게 중앙식물원의

연구자들은 말린소나무제품을 훌륭히 제작하기 위하여 지혜와 정열을 바쳐가고 있다. 이곳 연구자들은 말린소나무제작에서 잇의 자연적인 형태를 보존하면서 보관기일을 늘이는데 나서는 기술적문제들을 자체의 힘과 기술로 해결하였다. 유원지총국 과학기술성과 전시회-2019에 말린소나무제품을 출품하여 우수한 평가를 받은 이곳 연구자들은 그에 만족하지 않고 말린소나무제품제작의 주요공정들에 국내에서 생산되는 시약들을 리용하면서도 자연미를 살리고 보존기일을 더욱 늘이기 위한 연구사업을 근기있게 내밀었다. 이 과정에 말린소나무제품

제작에 필요한 시약의 대부분을 국내원료에 의거한 시약으로 보장하면서도 그 질적수준을 원만히 보장할수 있는 담보를 마련하였다. 이와 함께 조형예술성이 보장된 말린소나무제품본보장에도 큰 힘을 넣었다. 이곳 연구자들은 우리 민족의 사상강령을 조형예술적으로 잘 반영하기 위하여 식물원내의 소나무들은 물론 시냇가, 산내의 여러곳과 소나무산지들을 답사하면서 사진도 찍어오고 대중의 의견도 들으며 말

린소나무제품본본들을 확정하고 그에 기초하여 말린소나무제품을 훌륭하게 제작하고있다. 자기의것을 사랑하고 더욱 빛내려는 이들의 노력으로 하여 조선의 국수 소나무는 인민들의 생활속에 더 깊이 뿌리내리고있다. 본사기자 김해성



조선의 특산물 - 개성고려인삼제품

인삼이란 말은 그 뿌리가 사람모양이라는에서 지어어 이름인 산에서 지철로 자라는것을 산삼이라 하며 재배하는것을 인삼이라 부르 고있다. 인삼은 고려시기에 다른 나라들에 수출되면서부터 《고려인삼》, 《개성인삼》으로 불리며 세계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풍토와 기후 등 자연리적 조건이 인삼재배에 적합하고 상업이 발전한 개성 지방은 인삼재배 및 가공의

중심지로 되고있다. 옛날 력사와 문화를 자랑하는 유적들이 많을뿐 아니라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이 금 환근보다 낫다고 일러온 개성고려인삼으로 유명한 개성, 바로 이곳에 개성고려인삼가공공장이 위치하고있다. 개성고려인삼가공공장에서 생산되는 개성고려인삼제품은 개성고려인삼박, 개성고려인삼꿀, 개성고려인삼탕 등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 호평을

받는 수십여종의 인삼제품들 본사기자



덕과 정으로 화목한 공화국의 사회주의제도 하에서와 장애인들 도 사회와 집단을 위해 적극 기여하면서 보람찬 삶을 누려가고있다. 공화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장애인들이 사회성원으로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사회와 집단을 위한 여러가지 생활에 적극 참가하도록 하는 데 국가적관심을 돌리고 많은 시책들을 실시하여왔다. 국가적으로 장애인들에 대한 교육사업에 큰 힘을 넣어 그들을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인 능력을 지닌 힘있는 사회적존재로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로동분야에서 장애인들은 장애인도와 성별, 나이, 체질을 고려하여 직업을 선택할 권리를 가지며 필요에 따라 장애인들을 위하여 조직된 전문기술소나 단체에서 일할수 있다. 해마다 5월이면 공화국에서는 조선장애자보호회맹 중앙위원회 기능공학교 개학식이 진행되고있다. 장애인들이 능률적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의 취미와 소질에 따

고마운 제도에서

라 리발, 미용, 피복, 식료가공, 목공작업 등 갖가지 재능을 배워주어 그들이 어느 사람들과 똑같이 재봉과 리발도 할수 있게 하였다. 자기 취미와 희망에 맞는 로동생활을 하면서 재능을 꽃피워가고있는 장애인들은 조선장애자예술회 로동자 김승일도 있다. 장애인 김승일은 재능있는 악기제작자이며 공예애호자이다.

그는 바이올린을 훌륭히 제작하여 제9차, 제10차 평양악기전시회에서 각각 기술상과 과학기술우수상을 수여 받았다. 청년장애자인 그가 악기에서 기본인 음을 들을수 없다는것은 너무도 치명적인것이였다.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공명현상을 리용하여 피아노의 건반이 눌리울 때 매 음정에 따르는 진동수를 손잡각으로 감수하기 위해 피라테 노력하여 그 어떤 음도 감수하고 판별할줄 아는 놀라운 능력을 소유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6개월만에 만든 바이올린이 평양악기전시회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던 것이다. 오늘날 그는 나라의 악기 제작발전과 공예발전에서 이바지하는 데서 자기 삶의 기쁨을 찾으며 악기제작에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가고있다. 본사기자 리경월



황이한 두 현실

세계에는 《최상급》을 자랑하는 병원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최신의료설비를 갖춘 현대적인 병원이라고 해도 인간의 생명보다 돈을 먼저 중시하는것이 통례로 되고있다. 많은 나라들에서 리용하고 있는 각이한 의료봉사재정지출방식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 자본주의나라 병원들에서의 의료봉사재정지출방식들 가운데서 가장 단순한 것은 환자의 지불능력에 따라 의료봉사가 진행되는 방식이다. 일명 호주머니지불형식이 라고도 하는 이 재정지출방

식은 의료봉사활동이 전적으로 환자들의 지불능력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다. 환자들이 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필요한 의료봉사도 받을수 있고 의사와의 상담도 요구할수 있게 하는것이 호주머니지불형식이다. 이외에도 세금을 기초로 하는 국가의 재정지출방식과 각종 보험제에 기초한 재정지출방식이 있다. 그러나 모

든 방식들의 근저에는 환자들로부터 더 많은 돈을 빨아 내자는 목적이 깔려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리용되고있는 의료봉사재정지출방식들은 어느것이든 다 부정부패행위와 불합리한 재정지출현상을 산생시키고 있다. 병원에 치료받으려고 오면 환자는 자기의 병상태와는 관계없이 각종 검사를 받아야 한다. 병원들에서는 환자들에게 과잉처방, 과잉검사 등으로 치료비를 받아내어 엄청난 리윤을 보고있다. 《현대문명》, 《만민복지》를 떠드는 어느 한 자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천만금의 재부보다 더 귀중히 여기는 조선

베네수엘라의 인터넷홈페이지 클레에 명과 건강진진을 위하여 의사들이 일정한 주민구역을 담당하고 맡은 구역에 나가 주민들의 건강상태를 돌보며 예방치료를 하는 의사담당 구역제가 실시되고있다. 또한 먼거리의료봉사와 구급의료봉사를 비롯한 전문과 적의료봉사사업이 끊임없이 개선되고있다. 조선의 보건시책들은 철두철미 인민들의 생명을 보호

하고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부무하며 누구에게나 차별없이 실시되고있다. 사회주의보건이 국제적관심을 모으는 주요한 원인의 하나는 그것이 예방의학이라는데 있다. 조선에서는 예방을 잘하여 병에 걸리지 않게 하는것을 인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방도로 보고 질병예방과 위생문화적

인 생활, 로동환경조건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적으로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있다. 이 나라에는 도처에 의료봉사자들이 훌륭하게 꾸려져있다. 그것은 조선이 다른 나라들보다 유혹해서가 아니라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천만금의 재부보다 더 귀중히 여기기때문이다. 본사기자

본사기자 류현철